통일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14호 【루계 제2535호】

주체108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음력 2월 2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3월 25일과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는 전군의 장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웅대한 목표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앙양된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년간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의 기본사상을 군건설과 군사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지도사업이 심화되여 전군의 중대강화에서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도약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군의 모든 구분대들이 당중앙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온 나날에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가일층 강화하는데서 자기 몫을 단단히 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중대강화의 성과를 이룩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혁명위업, 우리의 국력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줄기차게 전진장성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고있지만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수호해가는 미더운 전우들이 곁에 있기에 두려울것도 주저할것도 없다는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는 항상 강직하고 훌륭한 우리 인민과 군대에 대한 고마움이 강렬하게 솟구치고있다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있어 당중앙은 세상이 보란듯이 우리의 결심과 의지대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시키고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보니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언제나 보고싶었던 사랑하는 병사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병사들을 위해 고생도 많이 하고 속도 태우며 군력강화에 헌신분투하고있는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성된 혁명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인민군대앞에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 관건적고리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강화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군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보위의 전초선을 지켜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이번 대회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중대중시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중대강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회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륙군대장이 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모범적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김수길총정치국장이 랑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중대강화에 크게 기여한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남철만, 최성민, 최은희, 박홍관, 리만복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고 대회주석단에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군의 중대지휘관들속에서 훌륭한 인간들의 진면모를 다시한번 보게 된것이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을 위해 바쳐온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이 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를 잘 알고 좋은 경험자료들을 깊이 연구하며 적극 일반화하여 중대강화에서 실질적인 앙양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최정예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군건설사상과 령군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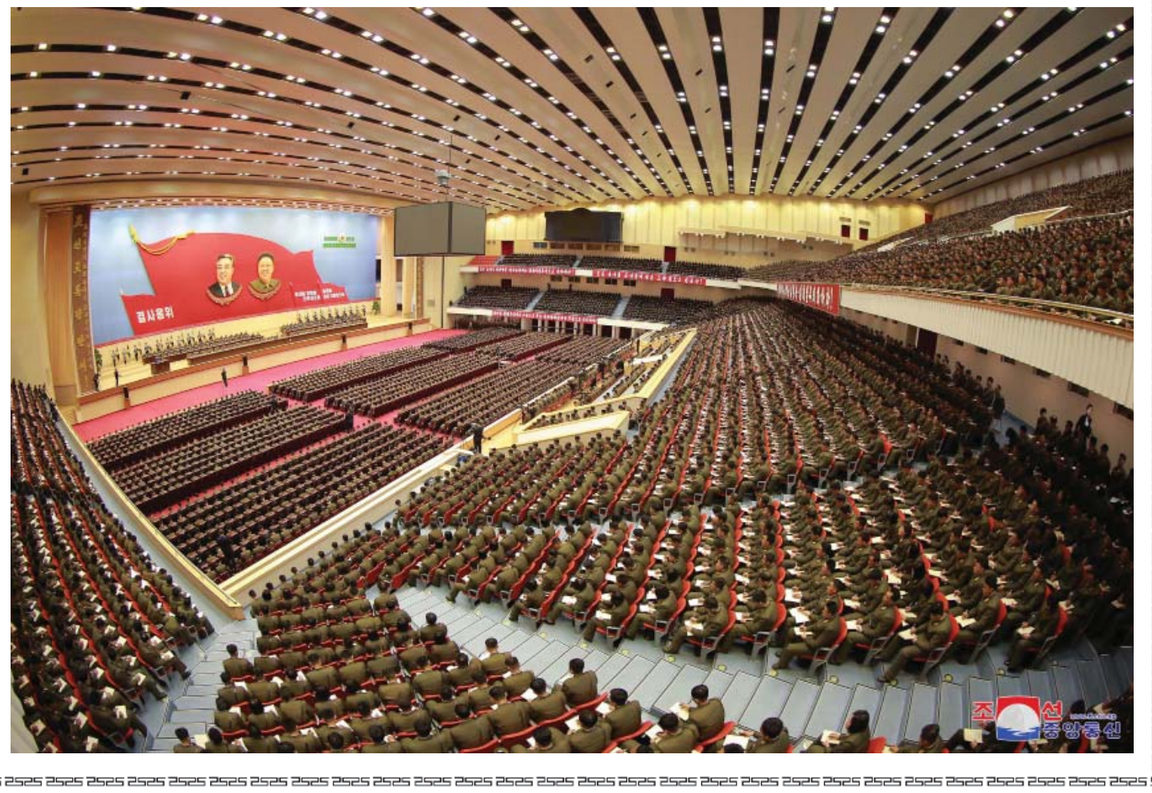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최정예화, 강군화에서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강화에 화력을 집중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강군건설의 열쇠가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지탱력, 무궁무진한 전진의 동력인 전군의 중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꾸리는데서 중대를 떠받드는 쌍기둥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훈련혁명 5대방침을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계속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용적실동훈련, 실용적두뇌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군적으로 무기, 전투기술기재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는 열풍을 다시한번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속에서 필수5대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혁명전통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긍정적 모범을 적극 내세워주어 군인들이 충정과 위훈으로 복무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빛내이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사상적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대를 동지애가 차넘치는 전투력있는 대오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지휘관들이 언제나 중대강화의 주체이며 주인인 병사들을 제일 믿고 그들에게 의지하여 모든 군사사업을 해나가는 관점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안에 칼날같은 군기와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확립하여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원천인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며 중대를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 자랑많은 중대, 부자중대로 만드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대지휘관들의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인민군적으로 중대지도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은 앞으로도 영원히 줄기차게 전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다그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강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앙양된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이 대회를 통하여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다그치는데서 중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깊이 절감하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중대강화에 전투준비완성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중대를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최정예전투대오로,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투쟁사와 건군사에 전례없는 위훈을 새겨야 할 책임적인 시기라고 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중대강화를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회폐회를 선언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월 27일 5월1일경기장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은 혁명발전의 중대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전군 중대지휘관들의 대회합을 소집하도록 하여주시고 몸소 대회를 지도해주시며 중대강화, 군력강화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신데 이어 오늘은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고마움의 정에 넘쳐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모범적인 중대지휘관들이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위업을 혁명의 붉은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참가자들의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군의 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오로,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범적인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특별히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연 이틀간에 걸쳐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여주시고 오늘 또 온 하루 중대지휘관들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무한한 흥분과 격정이 차넘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중, 2중3대혁명붉은기중대, 명포수, 명사수중대의 영예를 지닌 자랑을 안고 대회에 참가한 모범적인 중대지휘관들과 영웅중대장, 영웅중대정치지도원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본사기자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두고

몇해전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 인터네트홈페지는 평양에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최근 북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국제적인 제재속에서도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켜나가신다. 말그대로 불야경을 이룬 도시는 기발한 착상들에 의해 일신되고있다.… 평양식건축술은 외국건축가들과 류학생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딸리아의 한 건축가는 조선방문이 얼마나 감동적이였던지 평양을 본보기도시로 소개하는 책을 출판하였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미래과학자거리

길가에 리정표가 있듯이 건설에도 기준이 있는 법이다. 이 땅우에 일떠서는 건축물들은 형식과 규모, 용도는 각이하여도 하나로 관통되는 기준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다. 모든 건축물에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여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인민이 리용할 창조물들의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인민적인 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떠서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병원이라기보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옥류아동병원이며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어느 건축물을 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축되여있다.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려명거리에 새겨진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준다.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거리형성안과 조감도, 모형사판을 보시고 21세기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형성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축물들의 내외부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다그치며 전기, 난방, 급배수계통시운전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록화 및 지대정리사업을 따라세울데 대한 문제, 려명거리에 봉사망들을 전개하는 단위들에서 준공식이 끝나는것과 함께 봉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미리부터 운영준비를 착실히 해놓을데 대한 문제 등 려명거리건설완공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새 거리를 마련하여주시려는 그이의 진정은 수십차에 걸쳐 보아주신 무려 1 390여건의 형성안과 높이를 가늠해보신 부엌의 찬장에도, 거리의 곳곳에 뿌리내린 꽃과 나무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해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의주시건설총계획도와 신의주시도시건설전망모형사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신의주시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인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도시전력공급망체계를 완비하는 문제와 난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상수보장을 국제적기준대로 할데 대한 문제, 산업폐수, 오수정화체계를 잘 세울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진정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숭고한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분, 자신을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생각하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처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의 정력적이고 세련된 령도밑에 이 땅의 건축물들은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훌륭한 창조물들로 일떠서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미림승마구락부에 울리는 말발굽소리

평양시교외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는 명절날이나 휴식일에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말을 타며 민족의 오랜 풍습을 실감한다. 신체단련도 하고 생활의 랑만과 희열도 느낀다.

미림승마구락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인민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이다.

미림승마구락부에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애가 깃들어있다.

승마운동은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하여져온 우리 민족의 풍습의 하나이다. 일찍부터 우리 겨레는 말을 집짐승으로 길렀고 말타기를 즐기였다.

고조선사람들은 말을 리용하면서 구리로 말자갈을 만들어 말을 부리였고 말치레거리도 만들어 말을 장식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탈줄 알았다. 인재를 뽑을 때 말탈줄 알고 활을 쏠줄 아는가가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였다. 고구려사람들속에서 널리 장려된 말타기와 달리는 말우에서의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는 나라를 지키는데서 절실히 필요한 용맹을 키우고 무술을 익히기 위한것이였다.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위용떨친 고구려의 막강한 군력의 밑바탕에는 오랜 승마전통이 깔려있었다.

때문에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저는 말도 바른 길로 간다.》와 같은 말과 관련한 성구나 속담이 널리 전하여져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오랜 풍습을 귀중히 여기시여 승마운동을 널리 장려하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신것이다.

미림승마구락부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리용하고있는 미림지구의 기마훈련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말을 타고 주로를 달리시며 기마주로상태를 가늠하여보시였다.

주로의 상태가 좋은것을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승마운동은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대단히 좋은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평양시의 곳곳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로라스케트타는 바람이 불고있는데 승마장이 꾸려지면 승마운동바람도 일어날것이라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훌륭히 꾸려진 승마장에 와서 승마운동을 하는 과정에 몸과 마음을 단련할뿐아니라 생의 희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이 시작되게 되였고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개월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62만 7 000여㎡의 넓은 면적의 부지에 자리잡은 미림승마구락부는 승마주로들과 승마봉사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이다.

하기에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본 어느 한 외국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곳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수 있는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로 꾸려주셨다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민족의 승마풍습을 비껴담고, 인민의 기쁨싣고 미림땅에 말발굽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설

민족공조는 자주통일의 추동력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자면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해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조국이 분렬되여 장장 70여년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는것은 외세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동이 있기때문이다.

사람이 제정신을 잃고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민족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력사적사실들은 외세의존으로 갈 곳은 망국의 길이며 동족대결과 분렬의 지속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민족공조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의 지름길이다.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에 민족의 미래는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있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또한 굳건한 민족공조를 실현할 때에만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북남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온 겨레가 바라는 북남관계발전에 장애만 조성하는 외세와 공조해서 얻을것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정적후과일뿐이다.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는 당연한 리치이며 생존방식이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며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리념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 립장과 의지를 가지고 민족공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것은 외세이다. 외세를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의존하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자기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온 겨레는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반도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를 위한 각계 공동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립장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립장문》에서 참가자들은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전체이며 현 국면을 헤쳐나갈 힘 또한 국민의 역할에 달려있다.》, 《외세에 의존해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문제를 실현할수 없다.》고 밝히였다.

계속하여 참가자들은 오늘의 정세는 조선반도의 주인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협상의 구경군이 아니라 〈한〉반도평화, 번영, 통일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평화의 행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보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반도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이 땅에 겨레모두가 바라는 평화, 번영, 통일이 온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 공화국의 용단과 주동적인 조치로 북과 남에 조성된 전례없는 평화번영과 통일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남녘민심의 막을수 없는 흐름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담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온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래일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확약하였다.

북남관계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공화국은 이미전에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고 그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이처럼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공화국의 통일로선은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나가는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더우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북과 남이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더욱 드높이고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민족자강력을 마비시키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철두철미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조국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김명강

통일교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그가 누구이든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일애국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동력이다.

조국통일투쟁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야 할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따라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해나가는데서 외세가 간섭하거나 끼여들 자리는 없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인 외세는 민족의 분렬과 북남사이의 대결에서 저들의 리익을 추구하고있다. 외세는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로 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장장 70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것자체가 외세의 끈질긴 간섭과 방해책동에 기인된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는것이다. 통일을 절절히 념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길만이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 남조선의 이전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이 시종일관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외세와 작당하여 불순한 《체제통일》을 추구하고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완전파산의 낭떠러지로 내몰았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인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온 겨레가 투철한 자주적립장에 설 때 북남관계에서는 극복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겨레의 운명은 우리 민족스스로 결정한다는 든든한 배심을 지니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어떤 역풍에도 흔들림없이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대결과 분렬, 전쟁을 추구하는 추악한 반역집단

남조선의 극우보수떨거지들의 집합체인 《자유한국당》은 동족대결과 전쟁에 명줄을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단합을 악랄하게 반대해온 동족대결당이다.

돌이켜보면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자유한국당》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그 못된 버릇을 오늘도 버리지 못하고있다.

지난 세기에는 두말할것도 없고 새 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온 겨레와 전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그 무슨 《감상적통일론》, 《북의 통일전선전술》로 깎아내리면서 전면부정해나서고 체제대결정책인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즈덴선언》, 《통일대박론》을 극구 찬양해나선 대결광신자들이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의 조상들이다.

《자유한국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지난해 조선반도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던 때에 극도에 달하였다.

2018년 한해동안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여러차례에 걸쳐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등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면서 민족의 통일열망은 활화산마냥 타오르고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있지도 않은 《북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지난해 년초부터 대세의 흐름을 돌려세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역적패당은 지난해 정초 제시된 공화국의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시간벌기전략》,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한〉미동맹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악랄하게 헐뜯어대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공동의 대사로 성대히 치르기 위해 기울인 공화국의 숭고한 동포애적조치를 두고 남녘겨레가 감격의 환호를 올릴 때 《북이 올림픽을 체제선전마당으로 만들고있다.》고 왜가리청을 돋구며 무엄한 대결란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자들은 지난해 4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였을 때에는 《전형적인 화전량면술》, 《남남갈등》, 《안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라고 악담질하였고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되였을 때에도 《북에 무장해제당한 합의서》, 《항복문서》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

악질보수분자들은 서해열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한데 대하여 그 무슨 《북방한계선을 포기한것》으로,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안보를 허물고 〈한〉미동맹에 균렬을 내는것》으로 오도하면서 조목조목 헐뜯고 행악질하다 못해 군사분야합의서의 내용을 전면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고아댔다. 지난해 10월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의결되였을 때에도 당시 원내대표 김성태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등 《자유한국당》의 대결광신자들은 《9월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합의》,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였으며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정찰자산이 무력화됐다.》고 뇌까리며 북남선언들의 《국회》통과를 가로막을 흉심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철도, 도로련결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심보고약한 악담도 쉬쳐댔다.

올해 정초 울려퍼진 력사적인 신년사에 대해 김병준, 라경원을 비롯한 대결광신자들은 《북이 이번에도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미련합훈련중단과 전략무기를 포함한 전쟁장비반입의 완전중지를 요구한것은 사실상 〈한〉미동맹파기를 선언하라는것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지옥의 문앞에 서게 될것이다.》고 당장 날벼락이 떨어질것처럼 길길이 날뛰였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자유한국당》의 보수패거리들은 《2018국방백서》의 《주적》표현삭제문제와 관련하여 《안보공백, 안보파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아부재기를 쳤으며 특히 원내대표 라경원은 지난 1월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철수현장을 돌아치며 극도의 대결기운을 고취하기까지 하였다.

대세의 흐름이 어느 방향인지, 남녘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묻지마 반대》에만 매달리는 《자유한국당》의 보수패당들이 놀아대는 꼴이 얼마나 가소로왔으면 남조선사회 각계에서 《동북아정세변화와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랭전이데올로기》, 《대결구도에 사로잡힌 우물안의 개구리같은 사고》, 《무덤에나 가있을 색갈론》이라는 항의가 비발쳤겠는가.

《자유한국당》의 동족대결책동은 악질대결분자인 황교안이 대표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고있다.

황교안, 라경원과 같은 대결분자들은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현 당국을 헐뜯는가 하면 《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안보근간인 련합방위전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안보무장해제조치를 걷어들여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있다.

북남대결을 생존방식으로 삼는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사사건건 역행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의 대결추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것으로서 남녘 각계층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초불민의실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악의 본거지, 동족대결광들의 집합체인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암적존재로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증오와 규탄배격을 받는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혀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철민

《보안법》 없는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나가자

남조선단체가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보안법》철폐긴급행동이 23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대결과 분렬로 몸부림치던 민족의 앞길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열렸지만 반민족악법 《보안법》이 이를 가로막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악법이 없었다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이미 이루어졌을것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은 적폐의 뿌리이고 반인권, 반민족, 반평화의 강제적폭력수단이라고 호소문은 규탄하였다.

호소문은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화와 통일, 정의와 진보, 자주와 공동번영의 길을 걷겠는가 아니면 전쟁과 대결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겠는가.

전쟁과 대결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보안법》의 포로가 되지 말고 당당한 위반자, 징벌자가 되라.

전 민중은 반동과 보수의 최후발악을 짓누르는 자유의 초불, 평화의 초불, 《보안법》철폐의 초불을 들자.

통일과 평화, 반미와 민족자주를 사명으로 하는 모든 진보단체는 《보안법》철폐를 위한 전민족적운동의 핵심력량이고 선도자이며 민중의 조직자이다.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단체는 일치단결하여 《보안법》철폐를 위한 련대투쟁, 공동행동을 벌리자.

《보안법》철폐를 위한 투쟁은 악법의 수혜자들을 징벌하는 정치투쟁이며 민중적 결사전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리행의 대통로에서 《보안법》의 차단물을 없애버리자.

전지역의 모든 곳,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전개될 《보안법》철폐를 위한 전민족적운동에서 대중적진출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보안법》없는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나가자.

본사기자

드러나고있는 5.18광주학살범죄의 진상

보도에 의하면 전두환역도가 《계엄군》을 내몰아 5.18광주봉기참가자들에게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들이 나왔다.

문건에는 5.18민중항쟁당시 《진압작전이 있었다.》, 《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되여있다.

이를 통해 광주봉기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하여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전두환일당은 지금껏 5.18광주봉기당시 기관총사격이 없었다,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도 없었다고 강변하다 못해 그러한 작전자체가 없었다고 파렴치하게 놀아댔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재판때에도 역도는 광주봉기때 직승기에서의 기관총사격은 없었다고 우기였다.

광주봉기당시 직승기에서 기관총사격이 있었는가 하는것은 전두환역도의 죄행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5.18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5.18관련단체들과 시민들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힐수 있는 자료들을 전두환일당이 은폐시킨탓에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재판이 지연되였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1985년 당시 국방부가 작성한것으로서 거기에는 기관총탄에 맞고 숨진 광주시민들에 대해서는 시민군사이의 오인사격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들을 《기타 사망자》로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인사격으로 47명이나 죽을수 없다, 왜 《계엄군》은 죽지 않았는가, 1980년 6월 미국무성이 작성한 문건에도 기관총사격전에 경고가 있었고 사격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분노가 일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시대의 지향과 민심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여야 한다

초불민심에 역행하는 적폐세력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망동

얼마전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국회》 륜리특별위원회 륜리심사자문위원들이 갑자기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직 임기중에 있는 이들이 돌연 사퇴한것을 두고 남조선의 여야당들은 일제히 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한자들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하려는 〈자한당〉의 꼼수》라고 비난해나섰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2월 남조선의 《자유한국당》패들이 《국회》에 극우보수론객을 끌어들여 벌려놓은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데서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특수부대에 의한 폭동》으로, 봉기희생자유가족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들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즉시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여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한 《자유한국당》의 원들을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퇴출》시키며 이자들을 강하게 《징계》할것을 요구해나섰다.

온 남조선땅이 저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 규탄과 성토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자 바빠맞은 《자유한국당》것들은 《징계안》을 발표한다, 《사과》를 한다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이것은 민심의 규탄의 화살을 피하려는 한갖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의 사태들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새 당대표로 올라앉은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한자들을 징계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권력야망실현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반역패당은 《좌파독재정권》타령을 늘어놓다 못해 박근혜《석방》까지 쥐쳐대며 란동을 부리고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보수적폐청산요구에 도전해나서고있는가 하면 보수의 재부활과 재집권을 기도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죄의식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파쑈암흑시대를 되살릴 개꿈만 꾸는 악의 무리, 가증스러운 정치시정배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할 《적폐의 본산》으로 락인하고 반역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3월 23일 부산시에서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년학생, 가정주부 등 각계층이 《자유한국당》해체를 요구하는 제3차 초불집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친일매국노, 파쑈독재후예들인 《자유한국당》의 친일파 라경원과 적폐두목 황교안은 력사를 외곡하고 국민을 모독하면서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제세상처럼 미쳐날뛰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초불을 들어 박근혜역도를 심판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발악적망동으로 적폐청산은 늦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전국민적인 초불투쟁으로 보수역적당을 불사르고 밝은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들은 《〈자유한국당〉밟고가기》, 《〈자유한국당〉한대치고가기》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보수역적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같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민중공동행동과 5.18시국회의, 반전평화국민행동을 비롯한 7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자유한국당》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초불대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초불대회에서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은 초불투쟁의 성과물들을 뒤집어엎으려고 망상하면서 《국회》에서 민주개혁법안들을 반대하고 적폐판사들을 비호두둔하며 광주인민봉기를 외곡모독하고있다고 성토하였다.

수백여명의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속에 수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덮어보려고 발악한 극악한 살인마,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킨 《사법롱단》의 주범 황교안은 박근혜역도와 함께 청산했어야 할 특대형범죄자라고 규탄하면서 사회적진보와 정의의 훙악한 파괴자인 《자유한국당》을 쓸어버리는 투쟁에 총궐기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민심과 력사의 흐름에 도전하여 동족대결과 파쑈망동을 부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민중공동행동, 반전평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의 주최밑에 《자유한국당》의 죄행을 폭로하는 초불시민연설회가 열린데 이어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초불대회》가 개최되였으며 《자유한국당》해체를 위한 범국민초불행진도 진행되였다.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주와 부산과 대구에서도 울려나왔다.

이번 집회와 시위행진들에는 10대의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 보수적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70대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이 또다시 초불을 들고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수년전 남조선전역에서 타올랐던 초불항쟁은 남조선정치를 한갖 선무당에 불과한 일개인의 롱락물로 만들고 파쑈독재의 칼날로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의 지향과 념원을 무참히 란도질한 박근혜역도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심의 폭발이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등을 요구하여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를 비롯한 남조선전역에서 타올랐던 거대한 초불의 대하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사무원, 청년학생들은 물론 가정부인들까지 참가한 초불항쟁은 마침내 박근혜《정권》을 력사의 심판대우에 올려세웠으며 민심을 거역하는 반역무리의 종말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이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여 초불을 든것은 적폐의 무리 《자유한국당》이 초불민심을 거역하고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보려고 발광하고있기때문이다.

알려진것처럼 《자유한국당》것들은 초불민심에 의해 들어선 현《정권》을 무작정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하나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은 대표로 선거되기 전부터 박근혜의 그 무슨 《공》에 대해 지껄여대며 《수감중에 있기때문에 걱정한다.》고 쥐쳐댔는가 하면 박근혜《정부》가 한 일을 모두 국정롱단, 적폐로 보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국민통합이 필요한 때인것만큼 더이상 탄핵을 론하지 말자며 박근혜잔당으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한편으로는 현《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매도하며 당의 운영방향을 《좌파저지투쟁》으로 정한다, 《경제실정백서작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박근혜의 충견, 파수병으로 악명떨친자들이 《자유한국당》의 꼭대기자리를 타고앉아 벌리는 히스테리적광기는 단순히 잔명을 부지하고 권력야욕을 실현해보려는 몸부림에 그치는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의를 심판한 초불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력사를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돌리려는 범죄적인 망동이다.

《자유한국당》과 같이 력사의 퇴물들이 날로 높아가는 적폐청산의 기운을 막아보겠다고 발악할수록 그것은 남녘민심의 더욱더 큰 분노만을 자아낼뿐이다.

시대와 력사의 흐름을 거스르며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민심에 거역해나서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반역의 무리들이 갈 곳은 력사의 무덤밖에 없다.

최명선

남조선 각지에서

역적당해체, 적폐청산을 위한 초불투쟁 일제히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3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이 일제히 전개되였다.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해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범국민초불집회가 있었다.

4.16련대, 5.18시국회의, 민중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적폐청산 완수하자!》, 《력사외곡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민중항쟁의 력사를 외곡하며 파쑈독재통치를 정당화하는 반역정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발언자들은 국민모두는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참사의 주범이라는것을 알고있다고 성토하였다.

오늘날 5.18민주화항쟁의 력사가 훼손되는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처벌하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떤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범죄집단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초불항쟁에 의해 박근혜가 탄핵된지 2년이 되도록 아직도 반역세력이 활개치고있는것은 옳바른 적폐청산을 하지 못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 《5.18력사외곡처벌법》제정 등을 위해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범죄집단 《자유한국당》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해체》, 《불태우자 자유한국당》이라는 글이 씌여진 선전물들을 들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대구시에서 23일 《〈도로박근혜당〉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각계층 시민들은 《적폐몸통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황교안은 감옥으로!》, 《일 안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혈세 토해내라!》, 《탄핵부정 〈도로박근혜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가짜뉴스망언공장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력사외곡, 탄핵부정, 평화역행, 막말공장, 친일행각, 진실은폐, 성범죄당》 등의 구호를 쓴 프랑카드를 들고 재집권야망에 미쳐날뛰는 반역정당에 대해 성토하였다.

집회에서는 립장문이 랑독되였다.

립장문은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외곡하고 가짜뉴스를 통해 민주화력사를 부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지어 《색갈론》과 친일매국적망언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분렬을 획책하고있다고 립장문은 밝혔다.

립장문은 평화통일,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 땅에 존재할 리유가 없으며 국민의 해체요구에 응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친일잔재청산운동을 모독한 매국노를 단죄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독립운동가단체와 그 후손들이 22일 《국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라경원의 망발을 단죄하였다.

발언자들은 라경원이 리승만《정권》시기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을 위해 나온 기구였던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때문에 국민이 분렬되였다는 망언을 늘어놓은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라경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00년전에도 친일파 리완용이 3.1봉기를 억누르려고 《항일운동은 국민분렬》이라는 망발을 하였었다고 밝혔다.

리완용과 같은 망언을 일삼은 라경원은 력사앞에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토착왜구》의 서식지

동족대결과 파쑈독재, 온갖 부정부패행위로 민심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있는 《자유한국당》에 붙여진 오명은 수두룩하다. 《파쑈매국당》, 《동족대결당》, 《부정부패당》, 《오물당》, 《성추행당》, 《색정당》, 《적폐본당》 등 셀수 없는 별명을 갖고있는 《자유한국당》에 민심은 이번에 《토착왜구》라는 또 하나의 더러운 모자를 씌워주었다.

《토착왜구》란 남조선에 틀고앉아 일본해적과 같이 섬나라를 위해 못된짓을 벌리는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유한국당》에 이런 오명이 차례진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최근 이 당의 원내대표인 라경원의 추태를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얼마전 라경원은 현 당국이 친일파론으로 《국민을 분렬》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해방후 남조선에 조직되였던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국민이 무척 분렬됐던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친일매국노가 아니면 할수 없는 망발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해방후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해방전 일제에 적극 복무하였거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학살하는데 참가했던 친일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조직되였다.

그런데 리승만역도는 인민들의 요구와는 배치되게 친일반역자들을 청산하는대신 오히려 그들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결국 친일파들을 청산하기로 조직되였던 《반민특위》는 리승만《정권》의 조직적인 방해와 친일파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1년만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되게 되였다. 《반민특위》때문에 《국민이 분렬》되였다는 라경원의 궤변은 해방후 당시 《국민분렬》을 떠들며 《반민특위》의 활동을 완강히 반대한 친일파세력들의 궤변과 같은것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친일매국DNA를 계승하고있다.》, 《국민을 분렬시킨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친일파들이였다.》,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왜구〉는 청산되여야 한다. 〈토착왜구〉 라경원을 력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따지고보면 라경원이 친일매국노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시기 라경원이 남조선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꺼려하는 일본《자위대》행사에 뻐젓이 참가한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하기에 라경원은 올해 1월에 3차례나 발생한 남조선함선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에는 물먹은 벙어리마냥 입한번 벙긋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월 남조선당국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문제시하자 《〈한〉일관계가 일본의 보복문제로 악화되고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응하고있느냐.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하고있다며 아베정권의 대변인노릇을 뻐젓이 하였다.

가관은 민족주의자 김구를 테로범이라고 모독하는 지만원과 같은 《토착왜구》와 손잡고 《태극기부대》에서 《애국보수의 보물》이라는 《후한 평가》까지 받은 김진태와 라경원이와 같은 친일매국노들이 《자유한국당》내에서 제노라고 살판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별로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그자체가 친일매국노집단이기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뿌리부터 친일이고 줄기와 가지, 잎도 모두가 친일매국으로 엮어져온 반역집단이다.

이 당의 조상인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일제시기 다까끼 마사오라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고 항일운동세력들을 앞장에서 탄압한 극악한 친일매국노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친일반역자이기에 역도는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몇푼의 돈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였다. 《유신》독재의 잔당인 전두환군사파쑈깡패는 1984년 9월 일본을 행각하여 《일본과 〈한국〉은 같은 령토》, 《운명공동체》라고 망발을 일삼았고 더우기는 《일본의 방위력증강은 일본자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한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본의 재침열기를 더욱 돋구어주는 반민족적인 죄악도 서슴지 않았다.

《유신》독재의 후예인 박근혜는 애비의 본을 따 2015년 12월 밀실에서 일본과 몇푼의 돈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는 굴욕적인 《합의》를 하였는가 하면 그 이듬해 11월에는 《굴욕적인 매국협상》, 《21세기판 을사륵약》으로 불리우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사대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는 썩은 물웅덩이를 그냥 두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사람들뿐이다. 《토착왜구》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과 같은 친일매국정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친일매국노들이 더욱 날뛸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매국정당은 정계무대에서 한시바삐 매장해버리는것이 상책이다.

한광일

인민들이 즐겨찾는 명제품들이 늘어난다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

호평받는 《매봉산》구두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에서 많은 손님들로 붐빈 곳은 원산구두공장 전시대였다.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꽉 들어찬 전시대, 2중3중으로 쌓인 어깨성들, 웬간해서는 뚫고들어가기 힘든 그속에서도 어느새 신발을 사들고 신어보고 신겨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볼만하였다.

《지난해 신발전시회에서 사서 신어보았는데 구두가 가볍고 질이 좋아 또 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매봉산〉구두가 신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구두의 종류가 많고 또 하나같이 마음에 드니 고르기가 참 힘듭니다.》

량손에 구두를 골라쥔채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하는 손님들의 말이였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백명성 원산구두공장 기술부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지난해 진행된 〈전국신발전시회—2018〉에서 우리 공장이 1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민들속에서 호평받는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된 신발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새 제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군중합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뿐아니라 과학기술로 제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말에는 우리식의 구두창발포공정을 새로 꾸려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봉산〉구두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 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원산구두공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복의 무더위도,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주신 공장이 아닌가.

지난해 12월에도 공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공장으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애민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실현을 위한 열풍이 원산구두공장만이 아닌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고 오늘은 이렇듯 흐뭇한 신발풍경이 펼쳐진것이 아닌가.

백명성 원산구두공장 기술부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상표를 달아주신 《매봉산》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고, 앞으로도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년령별, 계절별, 직종별 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 남녀로소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질좋은 구두를 더 많이 생산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것은 그 하나만의 심정이 아닌 원산구두공장 기술자, 로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색갈도 형태도 다양한 운동신발, 체육신발들

련일 성황을 이룬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는 어느 전시대나 할것없이 질좋고 맵시있는 신발제품들이 차고넘쳐 사람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었다.

전시회장은 참관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미처 발을 옮겨디딜수가 없을 정도였다.

류달리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고있는 전시대에 가보니 각종 운동신발들과 체육신발들을 출품한 류원신발공장전시대였다. 여기저기서 신발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구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하느라 류원신발공장전시대의 봉사자들은 목이 다 쉴 정도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운동신발들과 체육신발들은 날로 높아가는 대중체육열기와 더불어 체육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속에서도 수요가 대단하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수십종의 운동신발들과 체육신발들을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우리와 만난 주인남 류원신발공장 기술부원은 열가소성폴리우레탄재료를 그물천에 열압착하는 기술, 아크릴수지유탁액을 그물천에 여러번 겹인쇄하는 기술, 다색인쇄기술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보강효과와 장식효과를 훨씬 높이고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뿐만아니라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도입하여 가벼우면서도 질이 좋은 신발창을 생산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운동신발은 활동에 편리하게 발에 꼭 맞으면서도 맵시가 있어야 한다고, 특히 땀을 잘 빨아들여야 하고 질기고 가벼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자기들이 생산한 축구화와 배구화, 롱구화, 탁구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매자들의 의견을 열심히 수첩에 적기도 하는 전승체육기재공장의 한 일군도 만나보았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자기들이 고심탐구하여 만들어 내놓은 운동신발들과 체육신발들을 신어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니 애써 일한 보람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력기, 레스링, 마라손 등 여러 경기용체육신발들을 출품한 라선선량무역회사의 한 일군도 전시회에 참가하고보니 느끼는것이 많다면서 앞으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더 큰 힘을 넣겠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체육기자재연구소, 북청신발공장, 함흥신발공장 등 많은 단위들에서 출품한 색갈과 형태가 다양한 각종 운동신발들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운동신발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있는것은 온 나라에 부는 체육열풍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운동신발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해 신발공업부문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색하고 노력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과학기술을 앞세워

《봄철전국신발전시회—2019》가 진행되는 기간 한쪽에서는 새 제품개발에서 이룩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과학연구성과를 배우고 기술을 교류하는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진행되였다.

과학기술성과발표회에서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신발제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그 질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다룬 많은 연구성과들이 발표되였다.

그중에서도 신발공업관리국 신발연구소에서 내놓은 《녀자편직운동신골의 설계》, 평양구두공장에서 내놓은 《3차원도형처리기술을 리용한 신발도안방법》, 전승체육기재공장에서 내놓은 《콤퓨터에 의한 새형의 축구화설계》, 평양구두공장에서 내놓은 《장식무늬형타를 도입한 갑피재봉기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 내놓은 《무크롬가죽이김기술》, 보통강신발공장에서 내놓은 《파폴리에틸렌—금속산화물계복합안정제 제조》도 가치가 큰것으로 인정되였다.

이밖에 여러 단위들에서 신발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거둔 연구성과들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흥남구두공장에서 내놓은 《무연탄가스발전발동기에 의한 신발생산》과 강서신발공장에서 내놓은 《물유리와 생석회를 리용한 신발생산》은 국내에 흔한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함흥접착제공장에서 연구도입한 신발접착제는 많은 단위에서 도입을 신청하였다.

전시회기간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단위들사이에 적극적인 기술교류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통해 모든 단위의 신발생산자들은 다른 단위의 발전속도와 신발의 질적수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어느 한 공장의 일군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고보니 배울것이 많다고, 자기들처럼 운동신발을 전문생산하는 경쟁대상들이 더러 있는데 뭐니뭐니해도 제일 부러운것은 과학기술력량이라고, 앞으로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겠다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인민들이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을 확신하였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번 전시회에 제출된 하나하나의 연구성과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어느 단위에서나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생산으로 국내패권을 쥐고 하루빨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들이 피력되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워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갈 열의에 넘쳐있는 각지에서 온 신발생산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시회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홍범식

자력갱생의 정신과 기질로

공화국의 생존과 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박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온갖 부정의의 도전을 짓부시며 줄기차고 억세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자력갱생은 조선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며 그 위력이 확증된 필승불패의 정신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장구한 력사의 행정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뚫고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전통은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다. 그때 조선의 혁명가들은 투철한 자주적립장을 가지고 누가 도와주기를 앉아서 기다린것이 아니라 맨주먹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였다. 그리고 국가적후방이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병기창을 꾸리고 자체로 화약을 만들어가며 강대한 일제와 싸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나날에 창조된 자력갱생의 정신은 공화국인민들의 투쟁전통, 투쟁기풍으로 되였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공화국인민들은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페허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후복구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공화국을 자립적경제토대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갖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는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전후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승리—58》형자동차와 《천리마》호뜨락또르, 첫 《붉은기》호 전기기관차 그리고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여난 CNC공작기계들을 비롯하여 자력갱생의 전통과 투쟁위훈을 전하는 창조물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최근년간에만도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으로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련이어 일떠세우고 새형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에 이어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기상품들을 생산해내는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공화국에 펼쳐진 현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갈 때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새로운 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번영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해당 사회건설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그에 따라 나라와 민족이 부흥의 길로 나아갈수도 있고 반대로 쇠퇴와 몰락을 면치 못할수도 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또 그 누구한테도 굽신거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고있다.

최근 공화국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승리들을 이룩하고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은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것도, 저절로 이루어진것도 아니며 자력갱생이 안아온 놀라운 성과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화국의 드높은 기상과 발전잠재력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어느 한 외신은 《조선인민은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한 민족, 한 나라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될 넋이다. 불확실성이 충만된 이 세계에서 그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영원히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체로 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자력갱생의 위력에 대한 인민들의 확신은 나날이 강해지는 공화국의 국력과 더불어 더더욱 백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공화국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시련의 광풍을 쳐물리치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표화두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지금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으며 국가과학원에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정말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지 모르겠다.

절세위인의 한없이 따사로운 손길아래 과학의 세계를 마음껏 탐구하고있는 조선의 과학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자원이고 무기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국력강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가겠다.

국가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박헌효

근로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조선의 시책

외국의 벗들이 찬양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속에 참된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의 벗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

짱고공화국 보건 및 인구상 쟈끌린 리디아 미꼴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이 국가적 관심사로, 제일중대사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보건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웅장하게 일떠선 병원들의 설비 하나하나가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료기술수준도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이다.

이를 통해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오늘 조선의 인민적시책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대표단 단원 나까쯔까 하쯔에는 학생용가방으로부터 교구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런 시책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있는것은 조선이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알따이공화국지부 위원장 까드끼나 다리야는 자기의 조선방문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류경치과병원에서

조선로동당의 정책은 오로지 인민대중이 존엄있고 궁지높은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지향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를 방랑하는 사람들을 볼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그 어떤 사회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만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체류기간 평양산원에서 검진을 받은 파키스탄친선대표단 단원 쎄에다 우르쥐 파티마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현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용이 너무도 엄청나기때문에 일반사람들은 불임증치료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다, 근로인민을 위해 실시되고있는 조선의 훌륭한 시책들은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부위원장 루까슈 브로벨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에서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의 혜택속에 인민들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의 사회제도는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본사기자

합성가죽생산으로 소문난 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합성가죽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지금 이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앞세우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제품의 질을 개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는 많은 합성가죽과 신발, 가방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이 공장에 찾아오시여 평성합성가죽공장이 합성가죽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이 큰 공장으로 전변된것만큼 생산을 정상화하고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도록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다 높은 생산성과로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와 만난 김예원직장장은 천연가죽에 못지 않은 질감과 함께 보다 윤택이 나고 부드러운 합성가죽을 생산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공장에서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질좋은 합성가죽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도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지난 기간 이 공장에서는 염화비닐도포에 의한 합성가죽과 유탁염화비닐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고 합성고무연구에 성공한데 이어 합성가죽과 EVA발포체를 접합할수 있는 생산공정과 잔디부직포 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공장에서는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합성섬유들을 가지고 질좋은 합성가죽을 만들어내고있었다.

생산공정의 첫 단계인 1직장에서는 해섬기안에서 흰목화송이마냥 한껏 부풀어오른 합성섬유들이 정량공급기와 소면기를 차례로 거쳐 바늘다짐설비로 향하고 수많은 바늘들이 우아래로 쉼없이 오르내리는 속에 맞은켠에서 합성가죽의 바탕재인 부직포가 완성되여 필필이 감겨지고있었다.

자기들이 만드는 합성가죽들에 대한 리용자들의 호평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공장의 한 일군은 《우리의 원료로 생산하는 합성가죽의 공기투과성과 땀빨성개선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시험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색조종프로그람을 도입하여 합성가죽의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하였다.

돌아보는 곳마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과시하려는 공장종업원들의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고있었다.

공장에서는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과 로동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로동자들을 위한 식당과 목욕탕, 수영장도 훌륭히 갖추어져있고 휴식터도 아담하게 꾸려져있어 우리들의 발길을 끌었다.

공장취재를 통해 우리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질좋은 합성가죽과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이 공장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애국의 열의를 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3대고려의학전서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약재와 약물, 뜸과 침 등에 의한 고려의학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의학의 전문분야들이 새로 개척되고 고려의학성과들이 집대성되여 중세의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동의보감》이 집필 출판되였다.

《향약집성방》은 1433년 로중례 등이 고려의학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민간에서 얻은 치료경험들을 종합하여 출판한 고려의학고전이다. 총 85권으로 된 이 책에는 질병에 대한 처방과 침구법, 약재와 그 산지, 약재의 특성과 약효, 채취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

로중례를 비롯한 의학자들은 국내외의 고려의학책들을 수집종합하여 1477년에 세계최초의 의학대백과전서인 《의방류취》를 내놓았다.

《의방류취》에는 모든 병들의 원인, 병리와 증후 등 기초리론들이 체계화되여있으며 치료법에서도 약물료법, 침구법, 식사료법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

《동의보감》(총 25권)은 허준에 의하여 1613년에 출판된 의학서적이다. 《동의보감》은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알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킨 치료법들과 처방들이 들어있는 책으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

탈

우리 민족이 오랜 력사적 과정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문화유산들중에는 탈도 있다.

종이나 나무, 박 등을 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꾸며서 얼굴에 쓰는 물건인 탈은 사냥이나 적수들과의 싸움, 로동생활과 공동체생활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창조되였다.

그후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탈을 많이 리용하였는데 탈춤이 그 대표적이다.

고구려의 고국원왕릉벽화에 인물형의 탈을 쓰고 춤추는 사람이 형상된것과 백제의 예술가가 일본에 고구려의 탈춤을 보급한 내용, 발해의 상경룡천부유적에서 탈춤군을 형상한 청동조형품이 발굴된 사실은 우리 겨레가 오래전부터 탈을 만들어 리용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탈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제작방법이나 형식에 있어서 지방적색채를 띠고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황해도지방의 탈춤들에 쓰인것은 종이로 만든 탈이였고 함경도지방에서는 나무탈을 많이 리용하였다. 박, 바구니 등을 가지고 만든 탈들도 있었다.

탈은 오늘날 시대적미감에 맞게 예술적으로 형상되여 체육경기응원과 예술공연무대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 (3)

5.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김일화

김일화선수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세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다.

그는 2017년에 진행된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강자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지니였다.

지난해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그는 녀자개인4단틀경기와 녀자단체틀경기에 참가하여 정확하고 힘있는 동작수행으로 2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녀자개인맞서기 77kg이상급경기에서도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아시아패권을 쥐였으며 녀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도 전술적의도에 맞게 주도권을 틀어쥐고 경기운영을 잘하여 팀이 금메달을 쟁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단체특기, 단체위력경기에 참가하여 우승함으로써 이 대회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6. 평안북도태권도선수단 선수 김향심

김향심선수는 지난해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태권도틀과 맞서기, 특기, 위력 등 6개의 세부종목경기에서 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녀자개인맞서기 57kg급경기에서 당당한 아시아의 태권도선수권보유자가 되였다.

그는 2010년 아시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후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수십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관록있는 선수이다.

지금까지 그가 국내경기들에서 받은 메달수는 40여개에 달한다.

풍부한 경기경험과 전적으로 하여 인민체육인의 영예를 지닌 그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8년에 세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현은경

봄철에 즐겨 먹는 나물음식

달래음식

달래는 파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달래로는 달래김치, 달래무침, 달래장절임, 달래지지개 등을 만들어먹을수 있다.

이른 봄철이면 뿌리채로 깨끗이 씻은 달래를 굵직굵직하게 채친 무우와 섞어 고추가루, 소금, 젓갈을 넣고 고루 버무린 다음 4~5일동안 익힌 달래김치가 별맛이다.

또한 달래를 양념장에 담근 달래장절임은 만들자마자 먹어도 산뜻한 맛이 나고 3~4시간뒤에 먹으면 달래의 속까지 양념물이 배여 들어가서 독특한 맛이 더 살아나므로 봄철에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냉이음식

냉이는 배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이다. 이른봄에 캐서 뿌리채로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메워먹으면 입맛이 절로 당긴다.

기름에 된장을 두고 볶다가 장국물에 냉이를 넣어서 국을 만들면 구수하고 감칠맛이 있다.

또한 냉이뿌리를 데쳐 낸 다음 잘게 찢어 고추장과 양념장에 버무린 냉이무침도 봄철 음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 냉이조개국
← 달래볶음

단편소설

철마의 꿈 (7)

글 조정협, 그림 리성일

모두 설레이는 마음안고 역으로 몰려간 그날이였다. 역사안에 들어갔던 선생님은 마치 얼나간 사람처럼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근심어린 모습으로 모여온 학생들을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으로의 렬차운행이 중단되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였다.

선생님은 짝 움켜쥔 두손을 쳐들어보이였다. 왜놈기관사가 던진 탄삽에 맞아 생겼다는 상처의 흔적이 력력한 손이였다. 그 손에 찍지 못한 기차표들이 한줌이나 들려있었다.

《선생님!》

어둠침침한 그림자가 가득 드리운 어린 학생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선생님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이루지 못한 소원이 깃든 기차표를 축축히 적시고있었다.

그때로부터 애국과 매국의 타협없는 싸움이 시작되였다.

도처에서 애국자들이 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땅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투쟁의 봉화를 거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선생님은 자주 그 봉화가 타오르는 곳으로 떠나가군 하였다.

선생님이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의 작은 문을 열고 나서면 제자들은 손꼽아 그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군 하였다. 기다림속에 흘러간 날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수연은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련을 맞게 되였다.

이 시기 선생님은 의용군에 탄원해나섰다. 눈물젖은 기차표를 쥐였던 그 손을 마치 기발처럼 쳐들었던 선생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눈동자에 영원한 인생의 스승, 따르고싶은 인간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선생님과 제자들은 전선으로 이어진 철길에서 작별하였다.

《통일이 되면 우리 함께 삼천리강산을 실컷 달려보자.》

바래우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룬 역홈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손에 작은 마분지쪼각들을 하나씩 쥐여주었다. 제자들은 두눈을 슴벅이며 그것을 줌안에 꼭 틀어쥐였다. 나라가 분렬되던 해 그들을 울리였던 기차표였다.

울먹이는 제자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걸어오던 선생님의 발걸음은 한수연의 앞에서 멎어섰다. 처녀는 자기에게 향해진 그의 눈동자를 보았다. 수업시간이면 스스럼없이 마주보던 크고 유난히 맑은 눈동자, 제자들을 꿈의 세계에로 이끌며 별처럼 빛나던 눈동자였다.

선생님은 수연을 역뒤의 조용한 곳으로 이끌어갔다.

《수연이.》

이렇게 불러놓고는 다음말을 잇지 못한채 바재이기만 하였다. 처녀는 그 눈동자에 리별의 서운함과 사나이의 애끓는 심정이 그들먹차오르는것을 보았다.

《난 꼭 돌아와. 기다려주겠어?》

능수버들 휘늘어진 마을의 내가에서 느낀것과 같은 흥분이 한수연의 온몸을 휩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사랑의 기쁨과 리별의 아픔을 한꺼번에 체험해야 하는 처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담뿍 고여 찰랑이였다.

《왜 울어? 아주 가는게 아니지 않아. 헤여진다는건 다시 만나게 된다는거야.》

선생님은 헌헌히 웃음지으며 말했다.

처녀의 그늘진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던 선생님은 언젠가 학교 뒤산에서 있은 일을 다시 상기시키였다.

그때 선생님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된 세상,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에서 행복의 철마라고 마음껏 달려보자고 이야기했었다. 그후 다가온 해방이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의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선생님은 온 삼천리강산을 주름잡으며 달리는 철마의 꿈을 이루자면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그래서 나는 교문을 나섰고 오늘은 또 이 길을 떠나는거다.》

수연은 고개를 쳐들었다. 어제는 자기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앞날의 꿈을 심어주던 선생님이 오늘은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인생의 교단우에 아득히 높이 서있는것을 보았다.

《수연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 마중해주겠어?》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사나이는 환희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처녀의 부드러운 몸을 숨이 막히도록 끌어안았다.

이윽고 기적소리 울리고 기차에 껑충 뛰여올라 손을 젓던 사나이의 모습이 수연의 눈동자에 사진처럼 또렷이 새겨졌다.

《모두 잘 있거라—》

한수연은 동무들과 함께 기차를 따라 달리며 몸성히 돌아오라고 목청껏 소리쳤다.

기차가 자그마한 점으로 사라져갈 때 한수연은 문득 자기 손에 쥐여져있는 기차표를 보았다. 활짝 손을 펴니 또박또박 새겨쓴 사나이의 글씨가 또렷이 비껴들었다.

《수연이, 기다려.》

그것은 한 청년이 남긴 인생의 언약이였다.

처녀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돌아와요, 기다리겠어요.》

작별의 시각에 울린 그 목소리들은 한수연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문자처럼 깊이 새겨졌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 청춘의 언약이 새겨진 기차표는 세월이 갈수록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새겨줄뿐이였다.

《아주 가는게 아니지 않아. 헤여진다는건 다시 만나게 된다는거야.》

기차표를 보느라면 그가 멀리에서 안타까이 자기를 부르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고 그러면 불쑥 그를 찾아 떠나고싶은 충동을 느끼군 하였다.

분렬의 력사가 지속되고 통일의 길이 묘연해질수록 한수연에게는 철마의 꿈을 위해 통일의 길에 나섰다던 선생님의 이야기가 사무쳐오군 하였다. 그러자 선생님이 남겨준 기차표가 다만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를 바쳐 철마의 꿈을 이루어가라는 격레의 당부로 마음속에 무겁게 들어앉는것이였다.

그 당부를 안고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섰고 시련많은 인생길을 꿋꿋이 걸어온 한수연이였다.

사무실에서 생길수 있는 병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사무를 보면 원기가 약해지고 기분이 울적해진다고 한다. 즉 사무실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우며 목구멍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난다는것이다. 어떤 때에는 온몸의 기력이 없어지고 졸음이 오며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증상들은 방안에 류동되는 신선한 공기가 없기때문에 생기는것이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건축재료와 가구들에서 나오는 냄새도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수 있다. 실례로 가구겉면이 해빛을 받아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같은것을 들수 있다. 콤퓨터, 형광등, 복사기, 세척기 등도 이러한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될수 있다.

실지 이 병을 고칠수 있는 처방은 간단하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 산보하면 된다.

본사기자

유모아

모두가 똑똑한 반

어느 학교에 교육참관단이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했다.

그런데 참관수업을 받게 된 학생들은 교원이 질문을 하면 모두 손을 들었고 교원이 지적한 학생들은 모두 맞게 대답했다.

교원과 학생이 서로 짜맞춘것이 아닌가싶어 한 참관단 성원이 즉석에서 좀 어려운 질문을 제시했다.

그래도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교원이 지적한 학생들은 모두 정확하게 답변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참관단은 크게 놀랐고 교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돌아갔다.

교장이 교원을 불러 물었다.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공부시켰길래 학생들 모두가 똑똑합니까?》

교원이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손을 들게 했지요.》

《그러다 모르는 학생을 지적하면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전혀 걱정없습니다. 답을 아는 학생은 오른손을, 모르는 학생은 왼손을 들게 했으니까요. 저는 오른손을 든 학생만 대답하게 했습니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